

다산포럼



박태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해 초 태국의 교수들, 서울대 대학원생들과 함께 한류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태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거절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도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 결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와중에 한국의 대중음악과 유사한 태국의 대중음악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태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 대중문화와의 공존이 필요하기에 이는 결코 부정적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물론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 문화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현재 속에서 타인을 이겨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 젠더 문제와 해외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현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춘 특특



김해리 동신대 한의학과 3년

우리는 경쟁을 일상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입시와 취업, 승진과 성과, 순위와 평가 속에서 타인을 이겨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 누군가의 탈락이 다른 누군가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구조는 더 이상 낫설지 않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우리는 성취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사는 게 의미 없고 재미없다고 말한다. 자극은 금세 무뎠고 성취는 또 다른 결핍을 낳는다. 하나의 경쟁이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경쟁의 장으로 들어선다.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공개 첫 주에 550만 회 이상 시청하며 비영어 TV쇼 부문 1위를 기록한 흑백 요리사2의 열풍 역시 이런 시대의 단면처럼 보인다. 우리는 왜 남의 경쟁을 그토록 열심히 지켜보는가. 끝끝이 부딪치고 시간이 초 단위로 쪼개지며 한 집시의 운명이 갈리는 그 자리를. 또 더 치열한 흑백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나는 뜻밖의 색을 보았다. 바로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선재님을 통해 승패의 색이 아니라 마음의 색을 발견한 것이다. 선재님은 요리를 '이기는 기술'로 말하지 않았다.

기고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협) 이사장

아침 햇살이 이슬을 털며 골목을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천천히 길을 걷는다. 목적지도 없고 정해진 루트도 없다. 그날의 바람이 이끄는 방향으로 몸을 맡길 뿐이다. 아무 이유 없이 걷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다가도 몇 걸을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닫는다. 세상에는 '걷는 자에게만 열리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산책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유이며 감각의 회복이며 존재를 다시 조율하는 예술이다. 우리가 평소 '일상'이라 부르는 세계는 대부분 속도 위에 세워져 있다.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는 시간, 성과를 요구하는 동선, 효율로 측정되는 하루. 그러나 산책은 이 질서에서 벗어난다. 걷는 순간 인간은 다시 세계와 나란히 호흡하기 시작한다.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을 규칙적인 산책과 함께한 인물로 유명하다. 페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기준으로 시계를 맞췄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칸트의 산책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성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재정렬하는 철학적 실천'이었다. 그는 인간 인식의 조건을 탐구하면

기회가 많은 나라를 기대하며

한류의 영향을 받아 대학원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한국학 분야의 연구에서 새로운 경향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한류가 한국 연구의 붐을 이끌고 있음에도 한류에 대한 연구가 한류의 진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을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직장은 한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의 취업 역시 매우 어렵다. 학위 취득 후 취업 기회의 제한은 한국에 대한 연구가 확산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투자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 기회의 제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한국에 대한 공부와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유학생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 고려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마치 한국도 개발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역들이 많은데 해외에 원조를 해야 하는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이 문제는 단지 국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국민들의 관심을 조사했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건강, 복지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평화 체제 등이 비전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부분이 '기회가 많은 사회'

를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가 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맹자가 향산항심(恒産恒心)을 통해 철학으로 제시했듯이 향산이 없다면 사회적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MZ 세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다.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계층 이동의 어려움은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혐오 시위에 참여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부 종교 파벌이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서울대 10여 개 만들기도 거점대학 졸업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취업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설날 아침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자랑하는 대신 주시투자도 잘하고 유튜브가 꿈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끈대의 푸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개인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잘 모르겠다.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에 비해 기회가 적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은 기회가 '차별'이어서는 안 된다. 미래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은 해외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이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흑백의 경쟁 속에서 한 그릇의 자비를 보다

재료를 다루는 손끝은 단정했고 말소리는 낮았으며 눈빛은 분주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놀라 이기려는 태도 대신 함께 음식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그 모습은 단지 한 참가자의 품성을 넘어 불교가 오래도록 지켜온 정신을 떠올리게 했다.

불교는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경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타인을 향한 적대와 비교로 변질 때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부다는 인간 존재의 조건을 직시했다. 삶은 고(苦)를 동반하며 그 괴로움은 갈에(渴愛) 곧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집착을 넘어서는 해답으로 중도(中道)를 제시했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거나 삶을 부정하는 극단적 고행도 아닌 그 사이의 길을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경쟁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중도는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 말할 수 있었다.

승리에 대한 집착, 인정받으려는 욕구, 우월감에 대한 갈망은 순간의 쾌감을 줄 수 있으나 오래 남는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 집착과 욕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을 경쟁자라만 바라보게 된다.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라 하여 모든 존재를 서로 의지해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 나는 타인을 믿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이해 위에 피어나는 마음이 바로 자비(慈愍)다. 따라서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통찰한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다.

선재 스님의 태도는 바로 그 정도의 실천처럼 보였다.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집착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태도. 요리를 통해 모두가 증명하려 하기보다 음식이 지닌 본래의 맛을 살리려 했던 자세는 자국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불교적 미학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요리 경연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무대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가장 비세속적인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승패가 갈리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 자신을 낮추는 태도, 과정에 대한 감사. 그것은 한 개인의 품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처럼 느껴졌다.

능력과 성과는 넘쳐나지만 타인의 실패를 기꺼이 품어주는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빠르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며 상대를 흑과 백으로 나누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선재스님의 고요함이 내 안의 거침을 조용히 돌아보게 했다. 숨을 고르고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말한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라고. 타인을 이기기 전에 자기 안의 선함을 잃지 말라고.

나는 무엇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무엇을 위해 성취를 소비하는가. 경쟁 속에서도 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 포용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힘이라는 생각은 흑백의 경계를 허물었다. 스님을 통해 본 자비는 특정 신앙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처럼 담백하게 우리 곁에 놓여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은 다른 미각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산책의 철학, 느린 사유의 미학

서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러한 산책의 계보는 근대 도시에서 새로운 형상을 띤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말한 '플라뇌르'는 목적 없이 도시를 배회하는 산책자였다. 그는 군중 속에 섞이되 동화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관찰하며 서두르지 않되 예민하게 감각한다. 플라뇌르는 도시가 만들어낸 근대적 인간이자 동시에 그 속도에 저항하는 존재였다. 걷는다는 행위는 이처럼 세계와 거리를 조절하는 하나의 철학적 태도였다.

니체에게 산책은 더욱 절실한 사유의 조건이었다. 그는 평생 심한 두통과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책상 앞에서는 오래 사유할 수 없는 몸을 지녔다. 대신 그는 걷는 철학자가 되었다. 스위스 실스마리아의 산길, 이탈리아 해안의 오솔길을 하루 네다섯 시간씩 걸으며 사유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산책은 글쓰기의 윤리이자 생활의 균형이었다. 그는 매일 일정한 거리의 걷기와 달리를 반복하며 '문장을 쓰기 위한 체력'을 관리했다. 그러나 그의 산책은 단순한 자기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소설 속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걷는 장면은 세계로부터 살짝 비껴난 존재들의 리듬을 보여준다. 걷는 동안 그들은 말하지 못한 상실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을 몸으로 통과한다.

걷는 자는 미세한 세계의 진동에 귀를 기울인다. 자동차 창 너머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풀잎의 흔들림, 벽돌 틈에 피어난 민들레 한 송이, 담벼락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고양이의 그림자. 산책자는 그 안에서 멈

춰 선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각한다. 그 순간 '살아 있음'이라는 감각이 조용히 폐 깊숙이 스며든다.

산책은 시간의 질을 바꾼다. 일상이 미래를 향한 직선이라면 산책은 현재에 머무는 원이다. 테라와다 불교의 걷기 명상이 말하듯 발바닥이 땅에 닿는 때 순간은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는 행위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삶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 머무는 존재가 된다.

이 느린 걸음은 현대 사회에 대한 가장 조용한 저항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아무 성과도 남기지 않으며 일정표에 기록되지 않는 시간. 그러나 바로 그 무용한 속에서 인간은 회복된다. 걷는다는 것은 선언이다. 나는 기계가 아니며 나의 삶은 효율로만 환산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산책길에서 나는 가끔 오래된 돌담에 손을 얹는다. 거친 표면에는 수십 년의 비와 바람이 축적되어 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의 유한함과 동시에 분명한 존재감을 느낀다. 걷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언어다.

산책은 우리를 어디가로 데려다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데려다놓는 길'이다. 사유가 과열된 시대, 속도가 신앙이 된 세계 속에서,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는 인간을 인간답게 되돌리는 가장 오래된 철학이다. 길 위에서야 비로소 나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발견을 향해 천천히 걷는다.

社說

위기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 절실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전남 동부권 경제는 여수의 석유화학과 광양의 철강이 주력인데 수년 간 지속된 침체로 지역 상권까지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 동부권 주력산업의 장기 침체는 여수광양항의 물동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광양항의 물동량은 2억 7440만 t으로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2018년 3억 330만 t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는데 여수산단의 석유화학과 광양제철소의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수광양항은 벌크선을 이용하는 비컨테이너 비중이 88%로 압도적인데 석유 정제제품과 철강 및 관련 제품이 모두 벌크선을 통해 수출길에 오른다. 지난해만 해도 이들 제품의 물동량 감소율이 전년 대비 6%를 넘다보니 여수광양항 전체 물동량 감소를 초래했다.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수와 광양의 주력 업종이 살아나야 하지만 정

부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철강은 미국의 품목관세 50%까지 직용돼 언제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기의 여수광양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 업종의 산업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해양수산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여수광양항을 거점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부산항을 거점항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여수광양항도 석유화학과 천연가스 등 비컨테이너 거점항구로 육성해야 한다.

부산항과 여수광양항을 국내를 대표하는 두 개의 항구로 육성한다는 이른바 '투포트' 전략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항구를 살려 물동량을 늘리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이제껏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 일이다.

광주 희생법원 개원 '골든타임' 확보 기대

희생과 파산을 전담하는 희생법원이다. 광주지방법원에 개원하는데 희생이나 파산 신청을 위해 서울과 수원으로 가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는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희생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산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희생법원은 이전의 파산재판부 기업이나 개인의 희생이나 파산을 전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수원에만 있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광주지법에 생긴다니 반가운 일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희생과 파산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고법 관할인 호남과 제주의 경우 2016~2022년 연간 6000여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1만 8000여건으로 늘었지만 지방법원 민사부가 일반 민사 재판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급한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전담 재판부를 찾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파산하는 경우가 잦고 시간·교통·비용 대리인 비용 부담도 컸다.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다. 위기에 몰린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희생법원을 통해 희생이나 파산 여부를 빨리 결정하면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나 면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면 사채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줄어 만성적인 상권 공실을 줄일 수 있다. 점차 지역으로 희생 시기를 놓치던 기업들도 제때 구조조정을 하면 도산이나 청산보다 존속 가능성이 커져 지역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광주 희생법원이 위기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기대한다.

無等鼓

'파견근무'(정미경·2013년)는 지방법원 근무를 지원한 판사의 이야기다. 우편물을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 재판과 한 주 동안에만 읽어야 하는 수천 쪽짜리 보고서도 다 못 읽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지루하지 싶었던 일상 대신 휴양지로 떠난 출장길은 삶을 사는 판사를 통해 약의 평범성을 들춰내는 단편 소설이다.

소설 속 주인공인 판사는 '켜켜이 쌓이는 공소장 안에서 인생들은 납작해지고 핏물 빠진 육포가 되어

국민 형제서 월급 받으며 수십 년 간 일한 공직자가 내란죄를 저질렀으니 가중 처벌해야 하

는 것이 아닌가. 젊었을 때 내란죄를 저질러야 제대로 처벌받는다. 국민 눈높이가 이렇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역사적 재판이나 심판의 장에 대한 인식 없이 하루하루 처리해야 하는 자기 일과나 업무로만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명의식이 부족한 법관들에겐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도 일상의 일일 뿐 국민 법 감정은 먼 다른 나라 일인듯 싶다.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국민법감정

있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모든 게 사소해졌으니 가중 처벌해야 하 무죄를 다루는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면 어쩌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점차 가벼운 회사를 여러 번 읽은 손바닥처럼 질기고 무디게 바뀐다. 결국 판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 한마디 내뱉는다. '정 역을 하면 항소하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극원)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notice about the Kwangju Citizen's News Council.